‘책 여행, 발견하는 기쁨’ 전주독서대전

시, 30일~10월 2일 전주한벽문화관 · 완판본문화관 일원서 110개 프로그램 진행

독서의 계절을 맞아 대한민국 책의 도시 전주에서 책 여행과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축제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2022 전주독서대전’을 전면 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

‘책 여행, 발견하는 기쁨’을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개막공연과 강연, 공연, 경연, 전시, 시민토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북마켓과 독서체험부스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릴 예정이어서 축제를 기다려온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에는 전주한벽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주 올해의 책 성인 부문으로 선정된 최기우 작가의 희곡인 ‘달릉개’를 기반으로 한 소리극 공연과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곽장근 군산대학교 교수의 후백제와 전주에 관한 이야기 강연 △2022년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2022 전주독서대전’ 포스터

최종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 초청 독자와의 만남이 진행되고, ‘2022년 청년 책의 해’를 맞아 △2030 청년 책 포럼 △청년 주경야독: 달빛독서 △청년! 책이 맛있어지는 시간 △book극으로 떠나는 나침반 등 풍성한 행사가 준비됐다.

이어 10월 1일에는 △뇌과학자 장동선 △김하나·황선우 작가 △순례 주택의 유은실 작가 △2021년 혼불문학상 수상자인 허태연 작가 △김영 전북문인협회회장 △남해경 전북대학교 교수가 무대에 오른다.

여기에 독서대전 현장에서는 독서동아리 회원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100인 100색 독서토론 △어린이·청소년 비경쟁 독서토론 △열린시민토론회 ‘책잇수다’ 등 시민토론 행사도 진행된다.

독서대전의 마지막 날인 10월 2일에는 △시와 음악이 있는 김이듬 시인 △햇빛전쟁의 이순미 작가 △월촌 이기반 시인의 문학인생을 다룬 작고작가 세미나 △전주 한지의 김현조 전북시인협회 회장의 강연이 예정돼있다. 또, 폐막 공연으로 조선팝공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축제 3일 내내 △전주책이 피었습니다. △전주는 모두 작가 △고(古)잡지(영인본)·출간잡지 △여행 북큐레이션 △365일 매일이 소중한 ‘생일서가’ △완판본과 떠나는 전주 서포(書?)여행 △시민 공모전 수상작 ‘책 여행 독서사진’ 등 어느해보다 풍성한 전시가 상설 운영된다.

아울러 독서대전 현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북마켓 △독서체험부스도 천동로를 따라 즐길 수 있다.

30여 개 북마켓에는 출판사와 지역 서점이 참여하고, 13개 독서체험부스에서는 전북지역 독서 관련 기관·단체들이 독자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추억의 시간여행 ‘만화 덕후들의 방’ △30가족이 참가해 소중한 책을 판매하는 ‘시민책방’ △책을 접목한 기록경기 ‘길거리 책운동회’ △게릴라 XO퀴즈 ‘모 아니면 도’ △전주독서대전 마스코트를 찾는 미션 ‘L군을 찾아라’ 등이 준비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게 된다.

최락기 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현장에서 더 많은 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이번 책 여행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기쁨이 찾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많은 시민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서 현장의 즐거움을 만끽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 전주독서대전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 등은 전주독서대전 공식 누리집(www.jjbook.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0-1856)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 전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전주시가 모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등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2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사회복지 시설·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할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세부사업을 선정해 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연차별로 실행하고 평가하는 4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 전주’를 목표로 수립된 제5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촘촘하고 든든한 돌봄 실현 △온전한 건강 지킴 시스템 강화 △행복한 삶을 누리는 문화여가 복지실현 △역량강화와 고용의 선순환 실현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구축 등 5개 분야의 사회보장사업 전략과 4개 분야의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 아래 5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분야별 중점추진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아이돌봄통합정보센터구축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확대 △전주시민365 건강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맞춤형 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예술단 창단 운영 △여성재도전사관학교 운영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빈집정비를 통한 생활SOC 확충 △전주형 주거급여 지급 등이 제시됐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시민의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개별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분석, 복지분야별 간담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공공과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 구도심 ‘충경로’ 40여 년 만에 변신한다

시, 2023년 완공 목표로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1980년대 이후 제대로 된 도로정비사업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전주 구도심 중심 도로인 충경로가 4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충경로를 중심으로 인근 12개 노선 2.7㎞ 구간에 대한 보행환경 특화지구 조성사업이 국비 공모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총공사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충경로 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기존 4차선을 유지하되, 낡은 보도와 차도를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차도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아스콘에 비해 뛰어난 차열 효과와 미관이 우수한 블록 포장재를 사용해 일반적인 도로와 다른 도로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시는 전주시내 중심 도로인 충경로가 보행친화거리로 조성되면 보행인구 유입을 통해 한옥마을에 국한되었던 관광거점을 구도심으로 확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시는 충경로 보행친화거리 조성과 더불어 사업구간 인근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구도심의 중심인 충경로가 정비되면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사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상인,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나눔 · 순환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 협력

전주시의회-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공동대표 김진형, 김주형, 정창남)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활용과 자원 순환, 나눔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전주시의회와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는 27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증 스테이션 설치와 판매행사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나눔과 순환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내달 5일 시의회 로비에 기증 스테이션을 마련해 의원과 시의회 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는다. 또한, 같은달 28일에는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판매행사를 열어 수익을 발생시킨 후, 이를 필요한 곳에 후원하거나 자원활동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기동 의장은 “나눔과 순환을 위한 아름다운가게의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시의회 또한 자원 순환과 탄소 중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형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 공동대표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 객사천 · 아중호수길 일대 안전하게 정비한다

재해위험개선지구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 219억원 확보

과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및 유실 피해를 겪었던 전주 객사천 일대가 안전한 마을로 탈바꿈된다.

시는 내년도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총 219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확보한 신규사업 예산은 객사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84억 원과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5억 원이다.

먼저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인 객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유수의 범람과 제방 유실 등으로 과거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겪었던 객사천 일대를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대성동 고덕산장에서 전주천 중류부로 유입되는 객사천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지의 침수피해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인 아중호수길 급경사지도 안전하게 정비한다. 시는 해빙기 또는 호우시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를 정비해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청 등과 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거쳐왔으며, 그 결과 신규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김재훈 기자